

21개국 재외동포, 전주서 한국 전통문화체험

재외동포 아동·청소년·한국어 교사 등 60명 대상 민족 정체성 확립 등 위해 프로그램 진행

세계 21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전주를 방문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배운다.

전주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재외동포 아동·청소년과 한글학교 교직원 등 총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한국어 교육과 한옥, 한지, 한식 등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글학교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 첫 선을 보인 후 해마다 운영되어오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다. 지난 2022년 재개됐다.

올해 연수는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아동·청소년 연수와 지난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한글학교 교직원 대상 연수 등 2가지로 나



전주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재외동포 아동·청소년과 한글학교 교직원 등 총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누어 운영된다.

먼저 미국과 네덜란드, 프랑스 등 13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아동·청소년 30명이 참여한 아동·청소년 연

수의 경우 참여자들이 지난 3일에 서울에서 교식을 마치고 전주로 내려와 9박 10일간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K-POP, 동요 등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사물놀이, 부채춤, 한삼춤, 민요, 한지공예 등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한옥마을 탐방 △전통문화연수원 예절교육 등으로 운영됐다.

특히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지난 11일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전주에서 배운 부채춤과 한삼춤, 민요를 가족과 친지 앞에서 보여주는 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이어 15개국 한글학교 교직원 30명 대상으로 운영되는 2차 연수에서 참가자들은 전통문화체험과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에 대한 전문가 특강, 마당극 관람 등을 경험하게 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전통문화 체험 연수를 통해 모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긍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본국에 돌아가 전주와 한국의 훌륭한 문화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책임질 '차량돌봄센터'가 문을 열었다.

마을버스 '바로온' 더안전해진다

전주시설공단, '차량돌봄센터' 개소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책임질 '차량돌봄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열었다.

차량 관리를 위해 시설공단이 자체적으로 정비소를 구축한 전국 최초 사례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지난 12일 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공단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개소식에서 구대식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 기술을 가진 직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전국 최고의 시설을 구축한 데 의미가 있다"며 "그간 고생하신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강조했다.

또 "바로온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정비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센터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마을버스 차고지 옆에 총 500㎡ 규모

로 조성됐다.

2개의 정비 피트와 리프트 1대 등을 갖춘 정비소(360㎡)와 대형차량 세차장(140㎡)으로 구성됐다.

자동차전문정비업(예 3급 카센터)으로 등록돼 있으며 차량 점검은 물론 판금, 도색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 정비가 가능하다.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정비 인력도 추가로 채용했다.

공단은 정비소 구축을 위해 건축과 기계, 전기와 정비 등 각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5차례의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또 자체 차량 점검과 정비를 통해 연간 1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공단은 총 25대의 차량으로 27개 노선을 운행 중으로, 매일 시민 2700여 명의 든든한 발이 돼 전주시 구석구석 누비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세사기 피해예방 '머리 맞대'

전주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간담회 가저

전주시는 지난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과 김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 등 14명의 참석자들은 최근 전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의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과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인 만큼,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부동산 공적 장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에 대해 직접 확인·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대책을 함께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한국공인중개사 전북특별자치도회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법 및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 등도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지난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우 큰 만큼, 공인중개사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 따른 직업윤리 교육 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제 전주시도 전세사기 피해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협업해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으로 선제적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

전주시, 토크콘서트 갖고 탈북민 아픔 공유·북한인권 현실 알려

전주시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의 통일전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회장 하재관)와 함께 지난 11일 중부비전센터 글로리아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자원위원, 지

역주민이 함께한 가운데 북한인권 관련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비욘드 유토피아 영화는 2024년 1월 개봉한 북한인권 관련 영화로 세계에



서 가장 위험한 나라인 북한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내용으로 2023년

39회 선댄스영화제에 관객상을 수상한 영화이다.

영화 상영 후에는 영화의 주인공인 북한에 두고 온 이들을 남한으로 데리고 오려는 엄마 이소연 탈북민과 탈북한 가족을 위해 위험하고 용감한 헌신을 해주고 계신 김성은 목사, 전주에 거주하는 탈북민과 함께 토크콘서트 시간을 가졌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개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센터)는 지난 12일 전주해성중학교에서 본교 1학년 학생 약 19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Dream Job School' (이하 진로박람회)을 개최했다.

진로박람회는 센터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진로 특성화 사업으로,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성취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로박람회에서는 사단법인 지오펀 교육 전문 강사 8명과 함께 △기후변화 전문가 플랫폼 테라피스트 △IoT 블루투스 스피커 △하우스오르플(메카트로닉스) △전기자동차 △디지털 아



티스트 △광고디자이너 △3D Makers 등 총 8개 분야로 반을 구성해 미래 직업군에 대한 소개와 강의가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던 청소년들은 각자 관심 있는 4차산업과 관련된 직업 분야를 선택해 전문가를 통해 미래의 다양하고 유망한 직업을 깊이 있게 알아보고 직접 체험해보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